



친환경 · 첨단 · 명품 건축 박람회, 8th HOMEDEX 2006

로하스,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말하다

최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웰빙(Well-being)’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념으로 사회적인 웰빙을 뜻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가 새로운 주거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로하스’는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건강, 환경, 사회 정의, 자기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에 가치를 두는 소비 생활 방식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로하스가 주거 생활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지난 4월 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로하스 주거 문화’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자재 박람회가 열렸다. ‘LOHAS HOME in Your Dream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친환경 · 첨단 · 명품 건축 박람회 ‘홈덱스 2006’이 그것.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건축박람회 홈덱스 2006’에서는 인간과 환경, 공동체를 아우르는 ‘로하스 홈’ 주거 문화를 보여줄 참신하고 다양한 건축 자재 · 인테리어 및 전원주택이 소개됐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주택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한국건강주택협회가 꾸미는 건강주택기획관. (사)한국건강주택협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곳에는 오토윈, LG화학, DID벽지, 히노끼건축, 포원키즈 등 20여 개의 친환경 건축 자재 업체들이 34평 규모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마룻바닥, 벽지, 가구, 인테리어 소품, 커튼, 패브릭 등 실내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든 자재를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친환경 제품으로만 꾸몄다. 새집증후군 염려가 없는 쾌적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인 것.

수입 벽지를 취급하는 에이팩&에공간은 알레르기 유발이 없고, 화재 안전성을 인증받은 친환경 페인팅 벽지를 선보였다.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 업체인 새집연구소는 새집증후군 방지 광촉매 시공으로 친환경 주거 환경을 제안했다. 또한 미리내E&C는 캐나다 목재로 시공해 수명이 100년 이상 가는 목조건축을 전시했으며, 핀란드 기업인 라포니아하우스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목인H&D는 북유럽산의 엄선된 목재와 천연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건축 자재, 인테리어, 가구, 홈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하스 트렌드를 보여주는 박람회 '홈덱스 2006'이 개최됐다. 참신하고 다양한 건축 자재·인테리어 및 전원주택을 선보였던 박람회로의 초대. 에디터 이은숙 사진 제공 홈덱스 2006 사무국(02-553-9938)



소재를 사용, 핀란드 특수 공법을 이용한 전원주택을 소개했다. 친환경 마루 전문 기업 데코라인도 국립산림과학원과 엔비타(Enbita)와 공동 개발한 피톤치드가 코팅된 '피톤치드 건강마루'를 선보이며 참관한 이들의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주택협회의 회장인 연세대 윤방부 교수는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건강한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시설 원예 자재 전문 회사 코리아 하이그린은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소형 온실, 대양이앤씨는 휴대폰을 이용해 집안 곳곳을 움직일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건축 자재, 전원주택, 조경, 인테리어, 홈 네트워크 부문에서 다양한 전시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작년과 달리 1층 옥외 광장에 식물 모델 홈 5채가 등장해 관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돔 하우스 전문 제조업체인 휴먼스페이스가 에스키모인이 사는 이글루를 닮은 독특한 주택을 선보여 시선을 모았다. 휴먼스페이스의 서성진 대표는 "골조가 필요 없고, 비누와 물로 세척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다"면서 "사무실, 개인 작업 공간, 캠핑용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공수

한 현무암으로 만든 불한증막과 전통 시골 원두막도 참석한 이들의 눈을 끌었다.

주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미나가 매일 열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김대년 교수의 '친환경 주거의 발전과 우리들의 과제'라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일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내 손으로 하는 펜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펜션의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야외 정원 꾸미는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 세미나와 국내의 노령화 시대로 인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니어타운의 기획 및 해외 사례를 집중 조명해보는 세미나, 일반인을 위한 목조주택 세미나, DIY로 통나무집 짓기 등 주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 맞는 건축박람회 홈덱스, 첫날에만 1만여 명이 다녀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건축박람회 홈덱스는 지난 3월 29일 시작돼 5일간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첫날에만 1만여 명이 다녀간 한편 마지막 날까지 최신 건축 흐름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